

李退溪의 詠梅詩**

王 旻*

• 目 次 •

I. 序 論	VII. 體物性
II. 美人의 자태	VIII. 感悟性
III. 仙人의 風韻	IX. 輔仁性
IV. 隱士의 淸標	X. 靈動性
V. 貞士의 志節	XI. 結 論
VI. 寫實性	

I. 序 論

퇴계 이황의 자는 景浩니, 한국 眞城人이다. 송나라와 명나라의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더욱 朱子의 학문을 독실하게 좋아하여, 일찍이 그의 책을 정리하여 요긴한 내용을 뽑아 《주자서절요》 20권을 만들었다.

그의 학문은 주자를 바탕으로 삼고, 그 가르침을 책을 통하여 배웠으나, 친히 그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배운 바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만년에 퇴계 곁에다가 거처를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비들은 그를 「퇴계선생」이라고 일컫는다.¹⁾

* 대만 淡江대학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1호(1984) 게재논문

1) 《淡江學報》16期, 拙著《李退溪의 詩學》을 보라. (역주=이 논문은 《退溪詩

퇴계는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담담하며, 지조를 지킴이 굳고도 곧았다. 그렇기 때문에 山林에 물러나서 사는 것을 즐겁게 여겼고, 그윽하게 파문혀 지내는 것을 뜻으로 여겼다. 스스로

夙昔抱冲素
이전부터 소박함을 지니고 있었네,
平生丘壑期²⁾
평소에 초야로 돌아 가기를 바랐네,

라고 하였다. 더욱 매화꽃을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고상하고 아담하여 속기가 없는 것, 추운 때에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윽한 골짜기 사이에 숨어 있는 것, 호젓한 향기가 더욱 뛰어난 것, 격조가 높고 운치가 남다른 것, 뼈대는 말랐으나 정신은 맑은 것, 바람에 시달리고 눈에 고생함, 곧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함 때문이었다.

퇴계의 성품은 매화와 부합하고, 매화의 품성은 퇴계의 사람됨과 유사함이 있다. 매화가 소박하면서도 요염하지 않음은 퇴계의 담담하면서도 남에게 싫증나지 않게 함과 같고, 매화가 향기가 멀리 떨어질수록 더욱 맑음은 퇴계가 남몰래 있으나 날로 더욱 드러남과 같다. 매화가 혼탁한 세상을 멀리하여, 그윽한 골짜기에 숨음은 퇴계가 변화한 것을 마다하고 산림에 거처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의 운치가 맑고, 정조가 곧음은 또 퇴계와 서로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가 매화를 사랑하고, 매화를 벗한 것은 저절로 情理에서 우러나온 일이라고 하겠다. 퇴계는 매화를 「형」이라고 불렀고,³⁾ 매화를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學》이란 이름으로 역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음. 1981년 8월, 서울, 퇴계학 연구원 발행.)

2) 「夙昔抱冲素」는 《退溪全書》第1冊, 《文集》卷2, p.80<퇴계서당 앞에 있는 네모난 못에 가는 비가 내린 뒤에 지음>(溪堂前方塘微雨後作)이라는 시의 한 구절, 「平生丘壑期」는 《退溪全書》第三冊, 《續集》卷1, p.22<3월 병환 중에 뜻을 적음>(3月病中言志)라는 시의 한 구절.

감정이 남김없이 시 가운데 융화되어 있다.

심령의 慧眼으로서 매화의 특성을 투시하고, 淡雅한 筆觸으로서 매화의 신령스러운 자태를 그려내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인격화된 意象을(역주=心象과 같은 뜻) 형성하고, 그 순진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착함[善]을 표현함으로써, 「정결하고도 정결한」(潔潔淨淨地) 理想 세계에 도달할 것을 기약할 수 있다.⁴⁾

이러한 세계는 「절대로 공허한 데서 정신을 드는 것」(提神太極)⁵⁾과 같아서 현실을 초탈한다. 또한 「더러운 가운데서 허물을 벗고 나와서, 만물의 바깥에서 크게 난다」(蟬蛻於濁穢之中, 鴻冥於萬物之表)⁶⁾ 이러한 세계에 이르면 정신상으로는 절대로 자유로워져서 비록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나,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⁷⁾

퇴계의 詠梅詩가 상징하는 의의가 형성하는 인격화된 意象은 혹은 美人도 되고, 혹은 仙人도 되고, 혹은 隱士도 되고, 혹은 貞士도 된다. 어떤 때에는 한 수의 시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의상이 동시에 출현하기도

- 3) 《퇴계전서》제1책, 권5, p.151에 「늦게 핀 매화형이 더욱 진실함을 알겠네」(晚發梅兄更識眞)라는 구절이 있다. 같은 책 권 10, p.296의 「이 중구에게 답함」(答李仲久)에는 「매화형을 위하여 남의 조소를 해명한다」(爲梅兄解嘲)는 말이 있다. 또 《전서》 제4책, 《퇴계선생언행록》 권5의 퇴계선생께서 돌아가실 때의 기록을 보면, p.241에 「(방에서 용변을 받아내는 것이)매화형에게 불결하다」(於梅兄不潔)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
- 4) 《퇴계전서》제1책, 권16, p.424<기명언에게 대답하는 편지의 별지>(答奇明彦別紙)에서 「理」자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세 겹이나 허하나 지극히 실하고, 지극히 없으나 지극히 있으며,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나 고요하지 않으며, 정결하고 정결하게 털끝만한 것도 더해도 안 되고, 털끝만치 감해도 안 된다」(三虛而至實, 至無而至有, 動而無動, 靜而無靜, 潔潔淨淨地, 一毫添不得, 一毫減不得)
- 5) 史震林(1752년 경 청나라의 문인)의 <「西青散記」의 自序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 : 「스스로 그 정신을 지극히 허한 경지에서 들고서 내려다 본다」(自提其神於太虛而俯之)
- 6) 퇴계전서 제1책, 권1, 葉53, 「過清平山有感序」
- 7) 《논어》<위정>편 : 「공자는 말씀하시었다 : 『70세가 되자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였으나, 법도에 조금도 벗어남이 없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하는데 똑같이 순진한 미와 순수한 선을 갖추고 있으며, 사물을 사진과 같이 그려내고 그 정신을 잘 옮겨서 서로 더욱 드러나게 된다. 매화의 의상은 더욱 풍부하여지며, 매화의 정신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작자의 意境이 높음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뒷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작자의 사람됨을 생각하여 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저절로 얻는 이득이 있다고 하겠다.

II. 美人의 자태

매화를 미인의 化身으로 쓴 것은 어떤 경험의 類比와 어떤 의상의 융합에 바탕한 것이다. 중국의 고전 詠梅詩 중에는 이러한 수사 기교를 드물지 않게 자주 보게 된다.

羅隱(당나라 말기의 시인=역주)의

天賜胭脂一抹腮 - 하늘이 연지를 주어 뺨을 한 번 닳게 했네.

王安石的

漢宮嬌額半塗黃 - 한나라 궁녀의 예쁜 이마에 절반쯤 누른 색을 칠했네,

蘇軾의

玉人頰額更多姿 - 옥같이 예쁜 사람 성낸 이마는 더욱 모습이 다양하네,

와 같은 시에서의 「연지를 한번 닳게 했네」, 「예쁜 이마에 절반쯤 누른 색을 칠했네」, 「성낸 이마는 더욱 모습이 다양하네」와 같은 말은 모두 시인들이 매화의 모습으로부터 미인의 자태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문학적인 美感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 기교는 퇴계의 매화시중에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

<호당에 매화꽃이 늦은 봄에 비로소 핀 것을 보고 - 소동파의 운자를
사용하여>(湖堂梅花暮春始開, 用東坡韻)

芳心寂寞殿殘春, 玉貌綽約迎初暎. (文集卷一)

아름다운 마음 적막하게 늦은 봄을 장식하였음은,
옥같은 모습 얌전하게 첫 여름을 맞이하고자 함일세.

<붉은 매화를 놓고 지음> (紅梅韻)

玉骨丹砂略試裝, 群芳甘與讓韶光. (文集卷一)

옥같은 골격 붉은 모래로 단장하려고 하니,
못 향기로운 꽃 달게 아름다운 봄 경치를 사양하네,

<매화 그림에 붙여> (題畫梅)

一樹橫斜雪作團, 香肌痕盡玉生寒. (續集卷二)

온 나무에 가로 빗긴 눈이 덩어리를 이루었는데,
향기로운 살은 깡마르고 옥에서는 찬 기운이 나는구나,

「아름다운 마음 적막하다», 「옥같은 모습 얌전하다», 「옥같은 골격으로 단장하려고 한다», 「향기로운 살 깡마르고」라고 한 표현은 모두 매화를 미인에 비긴 것이다. 오직 이러한 비김은 다만 單句와 片語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淡雅한 맛이 있을지언정, 간드러진 맛은 없다. 蘇軾의

怕愁貪睡獨開遲, 自恐冰容不入時.

겨울 잠을 탐내어 유독히 늦게 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스스로 얼음같이 고운 얼굴 때 맞추어 나오지 못할까 겁내네.

와 같은 구절⁸⁾과는 그 취지가 크게 다르다. 소동파의 시는 가볍게 아

8) 소식의 <붉은 매화>(紅梅):

름다운 말을 토하여 내나, 너무 예쁨만을 추구하였다는 혐의를 면할 수 없다. 퇴계는 성리학자니 어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퇴계의 다음과 같은 시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김계진[彦居]이 소장한 채거경 [無逸]이 붓으로 그린 매화 그림에 붙여서> (金季珍所藏 蔡居敬墨梅)

瓊枝疎瘦雪英寒, 縱被緇塵不改顏.
可惜詩翁真跌宕, 枉將調戲比端端. (文集卷二)

옥 가지 성글고 메말랐는데 눈송이 차고,
더러운 티끌 묻었으나 얼굴만은 고쳐지지 않았네.
서글프구나, 시 짓는 늙은이 정말 버릇이 질탕하여,
터무니없이 장난삼아 端端에게 비유하였네.

이 시는 첫 구절에서는 매화가 성글고 메말랐지만 추위에 견딘다는

怕愁貪睡獨開遲, 自恐冰容不入時.
故作小紅桃杏色, 尙餘孤瘦雪霜姿.
寒心未肯隨春態, 酒暈無端上玉肌.
詩老不知梅格在, 更看綠葉與青枝.

겨울 잠을 탐내어 유독히 늦게 필까 두려워하고,
스스로 얼음같이 고운 얼굴 때 맞추어 나오지 못할까 겁냈네.
고의로 조그맣게 붉음은 복사꽃과 살구꽃을 닮은 것이나,
아직도 남아 있네, 바싹 마른 가지에 눈과 서리의 모습이.
차가운 마음은 봄날 온갖 화사한 모습을 좇지 않으려 하나,
불그레한 술기운이 까닭없이 옥같은 살에 올랐네.
시 짓는 늙은이 매화의 격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서,
자꾸 살펴보네, 녹색 잎과 청색 가지만,

역주=[詩老]-소동파의 이 시 自註:石曼卿이 <홍매>시에 「복사꽃인가 여겼더니
녹색 잎이 없고, 살구꽃인가 살펴보니 청색 가지가 없네」(認桃無綠葉, 辨杏有
青枝)

것을 이야기하였고, 다음 구절에서는 매화가 더러운 티끌에 물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추위에 견딘다는 것은 그 절개가 굳음을 나타내고,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결을 나타낸다. 매화의 사랑스러움과 귀함은 비단 옥 가지 성글고 눈꽃송이 맺힌 아름다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결하고도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바탕에 있는 것이다. 內在美를 外在美보다 중시한 것이 퇴계가 가진 심미적인 태도다. 이 시의 마지막 두 구는 당나라 시인 崔涯가 端端을 희롱한 고사를 사용하였다.⁹⁾ 「跌宕」하다는 말은 放逸하다는 뜻인데, 시인이 「장난삼아(調戲)라는 말을 잘못 퇴계 집어 넣어 不倫한 것에 비긴 것에 대하여 퇴계는 깊은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可惜」이라는 두 글자를 쓴 것만 보아도 그가 매우 유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仙人의 風韻

신선의 세계는 속세와는 다르고, 신선은 미녀와는 다르다. 매화를 가

9) 당나라 때 시인 崔涯가 일찍이 楊州의 名妓 李端端을 조롱하여 「코는 시커먼 굴뚝 같고, 귀는 검은 솔과 같다」(鼻似烟囪耳似鐘)는 글 구절을 지었다. 이 단이 이 시를 보고 근심하여 병이 들 것 같아 고쳐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에 다 시 絶句 한 수를 지어 주었는데 다음과 같다.

누른 월다말을 찾아서 비단 안장을 하고,
선화방에 사는 이단단이를 모셔오네.
양주 땅이 근일에 와서는 아주 옛날보다 달라졌음은,
한 떨기 꽃이 능히 흰 모란이 되었기 때문이라.
(覓得黃驢初繡鞍, 善和坊裡取端端。
楊州近日渾成差, 一朵能行白牡丹。)

후지는 이런 시를 두고 희롱하였다 : 「이씨집 아가씨가 앞서 시에서는 금방 시커먼 목물 못에서 나온 듯 하더니 위의 시에서는 금방 하얀 눈이 쌓인 봉우리 위에 올라앉은 듯이 묘사하였네.」《雲溪友議》라는 책 p.6 (臺灣, 廣文書局)을 보라.

저다가 仙人에 비긴 것은 매화의 얼음같은 살갗, 옥골같은 모습, 가냘프면서도 곱고 아름다운 운치, 속세를 벗어난 고상하면서도 우아한 기질, 깨끗하고도 조촐한 자태 따위가 불러일으키는 연상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 고대의 신화는 또한 연상의 소재를 제공한다. 퇴계가 매화를 미인에다가 비긴 것은 앞에서 이미 대략 언급한 바 있지만 상징성을 지닌 연상을 통하여 매화의 아름다운 자태는 더욱 미화되며, 자연스럽게 仙人의 意象을 구성한다. 퇴계의 다음과 같은 시를 분석하여 보면, 그 대체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호당에 매화꽃이 늦은 봄에 비로소 핀 것을 보고 - 소동파의 운자를 사용하여> (湖堂梅花暮春始開, 用東坡韻)

藐姑山人臘雪村, 鍊形化作寒梅魂.
 風吹雪洗見本眞, 玉色天然超世昏.
 高情不入衆芳騷, 千載一笑孤山園.
 世人不識嘆類沈, 今我獨得欣逢溫.
 神清骨凜物自悟, 至道不假餐霞噉.
 昨夜夢見縞衣仙, 同跨白鳳飛天門.
 蟾宮要授玉杵藥, 織女前導姮娥言.
 覺來異香滿懷袖, 月下攀條傾一罇。(文集卷一)

막고산 신선이 선달의 눈 온 마을에서,
 몸을 수련해 찬 매화의 혼으로 화했나니,
 바람에 불리고 눈에 씻기어 本眞을 나타내어,
 천연스런 옥같은 빛이 어두운 세상에서 뛰어났다.
 높은 뜻은 온갖 꽃을 어지럽게 나열한 곳에 들지 않고,
 천년 사이에 孤山에서 한번 웃누나.
 세상 사람은 그 뜻 모르고 沈諸梁 같다고 한탄하지만,
 이제 나는 나 혼자 혼연히 溫伯雪子를 만난 것을 기뻐하노라.
 기운이 맑고 뼈가 차매 스스로 깨달았나니,
 지극한 도는 굳이 안개나 돌는 햇빛을 먹지 않는다.

어제 밤 꿈에 흰 옷 입은 仙人을 만나,
 흰 봉을 같이 타고 하늘 문을 날아 갔다.
 섬궁에서 목절구로 쪼는 약을 달랬더니,
 직녀가 인도하여 향아에게 말하더라.
 깨어나매 이상한 향기가 옷소매에 가득하여,
 달 아래서 그 가지 휘어잡고 술바리를 기울인다.

-번역문은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퇴계집 I》 22~23페이지에서 율
 김. (부분수정) 역주는 생략함.

藐姑山人은 《莊子》<逍遙遊>에 보인다. 거기서 이르기를,

막고야라는 산에 한 신선이 살고 있으니, 살갗은 마치 얼음과 눈같고
 암전하기는 마치 처녀와 같았다.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 마시고
 이슬을 마신다.

라고 하였다. 고야산은 바다 저 쪽에 있는 신선이 사는 산이다. 이 신
 선이 사는 산 꼭대기에 「살갗은 마치 얼음과 눈같고, 암전하기는 마치
 처녀와 같은」 신선이 살고 있다, 이 신선의 冷凝 孤潔 清真 秀雅는 매
 화의 기질과 운취와 매우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는 仙人의 화신
 이 되었다.

바람에 불리고 눈에 씻기어 그 본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옥 같은
 빛깔이 천연스럽게 어두운 세상에서 멀리 뛰어난다. 높은 뜻은 운취가
 커 못꽃들과 짝을 하려 하지 않는다. 천년 사이에 한번 웃음은 오직 孤
 산에 사는 林逋라는 신선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주=임포는 송나라 사람, 杭州 西湖에 살면서 매화를 많이 심고,
 매화시를 지어서 이름이 있었다. 孤山은 부근에 있는 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나, 지금 나만이 유독 혼연
 히 그것과 만날 수 있으니, 마치 공자가 濳伯雪子를 만난 것과 같다.¹⁰⁾

10) 《장자》<田子方>편에 나오는 이야기. 온백설자가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노나

「기운이 맑고 뼈가 차다」(神清骨凜)는 말은 스스로 지극한 도리를 깨닫게 되면 말을 할 것을 기다릴 것도 없고, 안개를 먹을 것도 없다.¹¹⁾

퇴계의 이 시는 갑진년에 지었는데, 그 때 나이 44세였으며, 몸은 조령에서 벼슬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전원에 있었다.¹²⁾

사정과 소원은 어긋나니 정신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날아가는 신선에 의지하여 마음껏 놀아보기도 싶은 정신상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 시 가운데,

어제 밤 꿈에 흰 옷 입은 선인을 만나,
흰 봉을 같이 타고 하늘 문을 날아갔다.

는 표현은 「구속을 초탈하려는」(由拘束而超脫) 사상의 자연스러운 발로다. 그렇기 때문에 「흰 옷 입은 신선」(縞衣仙)은 곧 「찬 매화의 혼」(寒梅魂)이 변화한 것이다. 만약 「찬 매화의 혼」이 현실을 대표한다면, 「흰 옷 입은 신선」은 이상을 상징한다. 「찬 매화의 혼」이 「흰 옷 입은 신선」으로 변화한 것은 현실과 이상의 통일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통일은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 「정신상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¹³⁾

라에서 잠시 머물렀다. 공자가 그를 보고도 말이 없었다. 자료가 물었다 : 「선생님께서 은백설자를 보고자 하신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보고도 말씀을 않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공자의 대답 : 「저와 같은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 말을 시켜볼 것까지도 없다.」

- 11) 「안개를 먹는다」는 것은 道家들의 수련법이다. 《퇴계문집공증》권1, p.18에서 仙經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 「九霞眞妃는 안개를 먹고 日光을 마시는 법이 있다.」고 하였다.
- 12) 연보에 의거하면, 퇴계가 갑진 2월에 홍문관 교리로 소환되어 <독서당에 매화가 늦은 봄에 비로소 피자, 소동파가 지은 운에 맞추어 지은 시 2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는 「맑은 꿈 밤마다 전원으로 날아갔네」(淸夢時時飛丘園)이라는 구절이 있다. 《문집》권1, p.56, (역주:졸역《퇴계시학》 p.129에 인용)
- 13) 《近世儒學與退溪國際會議論文集》(第四回) p.133 李東歡 교수<退溪詩의另一世界>

이 시 중의 「蟾宮」·「玉杵」·「織女」·「姮娥」는 모두 중국 고대신화에 나온다. 퇴계는 이러한 것을 인용하여 詩境을 미화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意境을 높이고, 그것을 至善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 두 구절,

깨어나매 이상한 향기가 옷소매에 가득하여,
달 아래서 그 가지 휘어잡고 술바리를 기울인다.

는 이상에서 다시 현실로 되돌아온다. 「향기」(香)는 매화의 향기이며, 「가지」(條)는 매화의 가지이다. 가지를 휘어잡고, 술바리를 기울이는데, 향기는 가슴에 가득하고, 달은 몸에 가득하니, 이러한 감정·이러한 경치야말로 그 즐거움을 딴 말을 빌어 표현할 것도 없다.

퇴계가 만년에 도산에 거처를 잡은 뒤로는 한결같이 물러나서 숨어살고 싶었으며, 비록 여러 차례 소환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항상 조정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도산에는 산림과 계곡의 아름다움과, 봄 가을 아름다운 날씨, 꽃 피는 아침, 달 뜨는 저녁, 산에 오르고 물에 나아가며, 깊은 곳을 찾고 아름다움을 구하며, 마음은 한가롭고 눈에는 볼 만한 게 많으며, 화평한 중에도 스스로 터득함이 있었다. 보는 것마다 흥이 나서 표현을 하면 시가 되었다.

이 때에는 몸이 산림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조용하고 정신이 자유로우며, 조용히 살면서 도를 즐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때 매화를 읊은 작품은 비록 신선에 관하여 언급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풍격은 조종에 있을 때와는 판이하다. 여기서 다음에 두 수를 인용하여 감상과 분석을 시도하여 봄으로써 그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김신중(富儀)이 매화를 읊은 절구 시 세 수에 삼가 화답하여> (奉酬金
愼中詠梅三絕句)(한 수만 인용)

但知姑射出塵姿, 莫把芳辰較早遲。
萬紫千紅渾失色, 小園驚動兩三枝。(文集卷五)

다만 고야산인이 속세에 모습을 나타낸 것만 알 뿐이요,
향기로운 새벽 일찍다 늦다 시비하지 말라.
만 가지 자주 꽃 천 가지 붉은 꽃 모두 빛을 잃었고,
작은 동산을 온통 두 세 가지가 놀랍게 흔들어 놓네.

<상계서당에서 밤에 일어나 달을 대하고 매화를 읊으며>(溪齋夜起對月詠梅)

羣玉山頭第一仙, 冰肌雪色夢娟娟。
起來月下相逢處, 宛帶仙風一粲然。(文集卷五)

군옥산 머리에 있는 제일의 선인이여, 얼음 살, 눈 빛같이 꿈속에 고왔
었다.
달 아래 일어나 서로 만나는 곳에, 완전한 신선 풍채 한 번 살짝 웃네.
-역문은 《국역퇴계집 I》 p. 59에서 인용, 줄역 《퇴계시학》 p. 140
에도 인용.

앞의 시는 늦게 핀 매화가 못 꽃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첫 구는 매화의 아름다움이 막고야산의 선인과 같이 풍진을 헤치
고 깨끗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선인과 매화를 함께 묶음으로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음같이 깨끗한 살갗, 눈같이 흰 피부를 가진
얍전하면서도 아름다운 仙人, 바깥은 뛰어나고 안은 밝은, 고상하고 우
아한 仙風 道骨의 운취가 비범함을 생각나게 한다.

다음 구는 꽃이 빨리 피건 늦게 피건 시비할 게 없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두 구는 그 격조가 높고 운취가 뛰어나서 못 꽃들로 하여금
대경실색케 하고 있음을 썼다. 「만 가지 자주 꽃 천 가지 붉은 꽃」(萬
紫千紅)과 「두 세 가지」(兩三枝)는 수량상 강렬한 대비를 형성한다.
「놀랍게 흔들어 놓네」(驚動)와 「모두 빛을 잃었고」(渾失色)는 시간상의

로 영향이 엄중함을 나타낸다. 「놀랍게 흔들어 놓네」(驚動)에서 「모두 빛을 잃었고」(渾失色)까지 한 순간 사이에 일면이 사뭇 기울어지는 흔들림을 나타낸다. 못 꽃들이 卑俗함에 머리를 기울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적어냄으로써 도리어 매화가 고아하게 속세를 헤치고 나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뒤의 시는 비록 매화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으나 情境상으로는 똑 같지 않다. 첫 구절 「군옥산」은 신선이 사는 산으로, 《穆天子傳》에 나오는데, 西王母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전한다.¹⁴⁾

「제일가는 신선」(第一仙)이라고 하였으니, 그 아름다움이 비길 바 없음을 알 만하다. 다음 구절 「얼음 살 눈 빛깔」(冰肌雪色)은 그것이 맑고 결백한 것을 극도로 강조함으로써 첫 구절의 「제일가는 신선」이란 표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 꿈속에 「고운」(娟娟) 신선은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것이 바로 매화의 화신이였다. 퇴계는 서당에서 꿈을 꾸다가, 밤에 일어나서 홀로 걷는데 「달 아래서 서로 만나네」(月下相逢) 매화는 이미 신선으로 변한 것이였다. 仙風 道骨에 살짝 한번 웃으니, 이 때에 매화와 선인은 모두 변화하여 하나가 되고, 작자도 역시 매화와 더불어 변화하여 하나가 된다.

매화는 선인과 같이 맑고, 선인과 같이 향기로우며, 작자도 역시 매화처럼 맑고 매화처럼 향기롭다. 옛날 소동파가 문여가가 그린 대나무 위에 적어준(題文與可畫竹) 시에,

그 몸이 대나무로 변화하니,
무궁무진하게 청신한 대나무 그림이 쏟아져 나오네.
(其身與竹化, 無窮出清新)

14) 《穆天子傳》권2 : 「천자가 북쪽으로 정벌을 나갔다가 동쪽으로 돌아올 때에, 黑水를 따라서 군옥산에 이르렀다」 注 : 「즉 산해경에서 이르는 옥산인데, 서왕모가 사는 곳이다.」 또 이태백의 <清平調> : 「양귀비와 같은 미인은 군옥산 정상에서가 아니면, 요대의 달 아래서나 만날 수 있을 것이다.」(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이라는 구절이 있다.¹⁵⁾ 퇴계가 매화를 읊는 것도 「그 몸이 매화로 변화하여 무궁무진하게 청신한 매화시가 쏟아져 나오는」(其身與梅化, 無窮出清新)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다. 현란함에서 平淡함으로, 구속에서 초탈하여 자유롭고도 진실된 데로 돌아간다.

다시는 조정에 있을 때와 같이 「날아다니는 신선과 같이 즐겁게 놀기를 자나 깨나 아득하게 동경하지」(飛仙遨遊, 夢幻遐想)는 양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퇴계 만년의 詠梅詩風의 특색이다.

IV. 隱士의 淸標

매화는 추운 계절에 피어 桃李와 아름다움을 다투지도 않으며, 그윽한 골짜기에 자취를 숨기고 있어 속세의 변화함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옥같이 정결하고 얼음같이 맑으며, 추위에도 고적하게 혼자 지낸다. 매화의 특성은 곧 은사의 상징이다.

퇴계는 만년에 도산서당을 구축하고, 매화(梅)와 대나무(竹), 소나무(松) 국화(菊), 연꽃(蓮)을 다섯 가지 절개있는 벗(五節友)으로 삼았다. 이 다섯 벗 중에서도 퇴계는 매화를 더욱 사랑하였다. 그래서

我友五節君, 交情不厭淡.
梅君特好我, 邀社不待三.

나는 다섯 절개있는 분,
사귀는 정 담박함을 싫어하지 않네.
매화 군이 특별히 나를 좋아하니,
모임을 이름에 셋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네.

15) 《소동파문집》권16 <조보지가 소장한 문여가가 그린 대나무를 보고 씀>(晝晁補之所藏文與可畫竹)이라는 시.(역주=줄역 《퇴계시학》 p.141 전문 번역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다.¹⁶⁾ 퇴계가 매화를 酷愛하는 까닭은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주관적인 요소는 자기의 평소 생각 때문이고, 객관적인 요소는 매화의 특성 때문인데, 이 특성과 그 생각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곧 저절로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게 되고」(同氣相求) 「같은 병환은 서로 걱정하는」(同病相憐) 감정을 낳게 된 것이다.

퇴계에게는 <이대성[文樑]이 이른 봄날 매화를 보고 지은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지음>(用大成早春見梅韻)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때의 소식을 토로하고 있다. 원시 중에

我生多癖酷愛梅, 人道癯仙著山澤。
舊遊南國識玉面, 故人遠惠連根得。
自期相伴志巖壑, 胡奈風塵去飄泊。
豈無京洛或相逢, 素衣化縑嗟非昔。
寧辭白髮赴佳招, 瞥眼榮華過虻雀。
丙歲自比遼東鶴, 歸來及見花未落。
丁年病起始尋芳, 絕喜瓊枝攢雪萼。
.....

汾翁好事誇我說, 早梅先得天工力。
豈知陶梅知我病畏寒, 爲我佳期晚發猶不惜。
君不見范石湖, 種梅譜梅爲天職?
又不見張約齋, 玉照風流匪索寞?
嗟我與君追二子, 苦節清修更勵刻。(文集卷五)

나는 날 때부터 여러 가지 버릇이 있었는데 지극히도 매화를 사랑하였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깡마른 매화나무는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산간에 있어야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옛날 남쪽 땅에 가서 놀 때에 옥같은 그 모습을 알게 되었더니,

옛 친구 먼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뿌리째로 얻게 되었네.

16) 《퇴계전서》제1책, 권5, p.144 <김돈서의 매화시에 사용한 자에 맞추어 지음>(次韻金惇叙梅花)

스스로 기약하기를 서로 친구 삼아서 이 골짜기에서 같이 늙자고 하였
 더니,
 어찌된 까닭인가? 나는 풍진 속에서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었으니.
 어찌 서울에선들 더러 서로 만나지 않았으리요마는,
 흰 옷이 더러워져 옛날과 같지 않음이 한탄스럽네.
 어찌 백발이 되었다고 물리칠 것인가? 아름다운 초대에 응하여 되돌아
 오니,
 눈깜박할 사이에 누렸던 영화는 모두 등애가 지나간 것 같네.
 지나간 병인년에는 그대가 나를 요동을 훨훨나는 학에 비유하였고,
 돌아와서 보니 그대 꽃피어 아직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었네.
 정묘년엔 병을 앓다가 일어나서 비로소 그대의 향기를 찾으니,
 구슬 같은 가지에 눈같은 꽃잔들이 뚝고 나온 것이 한결 기쁘네.

분옹은 일을 좋아하여 나에게 과장하여 말하기를,
 일찍 피는 매화는 먼저 하늘의 교묘한 힘을 얻었다고 하였지만,
 어찌 아리요? 도산의 매화는 내가 병들어 추운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나를 위하여 때를 맞추느라고 늦게 피는 것조차도 오히려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범석호가,
 매화를 심고, 매화를 연구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던 것을?
 또 보지 않았는가? 장약제가,
 옥이 비친다고 하던 풍류가 삭막하지 않았음을?
 슬프다, 그대와 더불어 그 두 사람을 생각하여 보니,
 괴로운 절개를 맑게 닦기는 더욱 힘들었던 것을.

퇴계가 酷愛한 매화는 추운 곳에서 적적하게 그윽히 지내던 산간에
 핀 매화이지, 「흰 옷이 더러워진」 서울 매화는 아니다. 퇴계가 매화를
 사랑한 것은 매화와 더불어 서로 벗을 하고서 늙도록 골짜기에서 함께
 지내자는 것을 기약한 것이다.

도산의 매화는 내가 병들어 추운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나를 위하여 때를 맞추느라고 늦게 피는 것조차도 오히려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라고 한 것은 서로 벗함으로써 서로 알고, 서로 앎으로써 서로 아낀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范石湖와 張約齋의 옛날 고사를 본받음으로써 서로 친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괴로운 절개를 맑게 닦아」(苦節淸修) 더욱 고상한 격조를 지키자는 것이다.

<역주>

옛 친구(故人) : 瞻慕堂 林芸을 말함.

병인년 : 병인년(66세) 3월에 안동 鳳停寺로부터 도산으로 돌아오면서 <도산 매화를 찾음>(陶山訪梅)이란 시 두 수를 지었는데, 「그대는 먼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아오는 학과 같구려」(君如歸鶴下遼天) - 「매화를 대신하여 답함」(代梅花答)이라는 구절이 있다.

정묘년 : <정묘년(67세) 3월 3일 踏靑日에 병들었다가 일어나니 도산에 두견화와 살구꽃이 어지럽게 피었다. 창 앞에 작은 매화가 한 그루 있는데, 희기는 옥설과 같고 둥근 가지는 지극히 사랑스러웠다>(丁卯踏靑日病起獨出陶山鵲杏亂發窓前小梅一樹皓如玉雪團枝絕可愛也)라는 시 두 수가 있다.(역문은 민족문화 추진회 《국역퇴계집 I》 p.55~56에 수록)

汾翁—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李大成(이름은 文樑), 농암(李賢輔)의 둘째 아들인데, 사는 마을이 汾川이었으므로 이렇게 지칭한 듯함.

范石湖—남송 4대 시인의 하나인 范成大, 《范村梅譜》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서문을 보면 살던 집 남쪽에 남의 집 70여 채를 사서 다 헐고서 「范村」을 마련하였는데, 그 3분의 1에 모두 매화만 심었다고 함.

張約齋—남송 시대의 학자 張栻의 아우, 이름은 杓, 집에다가 매화 3, 4백 그루를 심어 놓고 자기 집 대청을 「옥이 비치는 집」(玉照)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범석호와 장약재가 비록 매화를 심고 매화를 사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사랑됨은 필경은 은사와는 달랐다. 정말 숲과 샘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매화와 더불어 은사의 생활을 일체로 묶은 것은 누구보다도 북송의 임포를 들 수 있다.

역사에서는 임포를-

성격이 평화롭고 담박하며 옛 것을 좋아하고, 속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西湖의 孤山에 초가집을 짓고, 20년 동안 발걸음이 시내에 미치지 않았다. 아내를 맞지 않고 자식도 없었다.¹⁷⁾

라고 하였다.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스스로 벗하였기 때문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梅妻鶴子)는 말을 들었다.

매화는 임포의 정신상의 의지가 되었고, 또한 은일정신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퇴계의 뜻은 전원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 임포를 본받았는데, 숨어사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 때문에 매화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우리나라에게 되었으니, 그 사적은 임포와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시 중에는 자주 「고산에 살던 매화를 즐기던 은자」(孤山梅隱)란 말로써, 임포의 影像을 환기시킴으로써 은일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① <호당에 매화꽃이 늦은 봄에 비로소 핀 것을 보고—소동파의 운자를 사용하여>(湖堂梅花暮春始開, 用東坡韻) :

伴鶴高人不出山, 千載一笑孤山園. —《文集》권1

학을 벗한 고상한 선비, 산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으니,
[매화꽃이] 천년 만에 한 번 웃는구나, 고산의 동산에서.

② <매화 핀 언덕의 맑은 향기, 기정의 열 가지 풍경을 읊은 시 중의 한 수>(梅搗清香, 歧亭十詠) :

고산에서 나즈막히 읊조리니 멋있는 생각을 다 차지하였네.

역주=歧亭은 경상도 咸昌의 公儉池 곁에 있는 정자로, 종종 때 대사헌을 지낸 權敏手가 지었다 함.

17) 《宋史》권457, <隱逸傳·上>

③ <정자중[惟一]의 편지를 받고, 시로써 정원에 있는 매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得鄭子中書, 吟問庭梅)

매화 중에 가장 호젓하게 핀 것은 고산의 매화일세(梅花孤絕稱孤山)

④ <다시 도산에 핀 매화를 찾아서-절구 10수>(再訪陶山梅十絕)의 하나

천년 사이에 고산에서 한 번 피게 된 것은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일세
(千載孤山有宿緣)—이상은《文集》卷4

⑤ <절우단에 매화가 늦은 봄에 비로소 피었기에 이 시를 지어 도산서당에 있는 여러 벗들에게 보이노라>(節友壇梅花暮春始開, 示同舍諸友)

바람이 다다르매 완연히 서호의 짝 같아(臨風宛若西湖伴)

⑥ <도산에서 달 밤에 매화를 읊음. 여섯 수>(陶山月夜詠梅六首)의 하나

지금에 차마 서호의 매화보다 나은 것을 잡을 수야 있겠는가마는(如今忍把西湖勝)

⑦ <매화를 대신하여 답함>(代梅花答)

나는 임포같은 신선의 모습을 바꾼 신선일세(我是逋仙換骨仙)

⑧ <다시 도산에 핀 매화를 찾아서-절구 10수>(再訪陶山梅十絕)의 하나—이상은《文集》卷4

임포같은 신선에게 말하지 말라 나비가 알고 있다고(不道逋仙粉蝶知)

위에 든 것은 모두 單句에 나오는 임포에 관련된 典故인데, 또한 운시 전체가 임포의 은거를 몰래 지적한 것이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두

수 꽃 그림을 놓고 쓴 시가 그러하다.

고산에서 매화를 즐기며 숨어 사는 이—정자중이 병풍 그림 여덟 폭에
적어준 시 중의 한 수>(孤山梅隱鄭子中求題屏畫八絕之一)

返棹歸來鶴趁人, 梅邊閒坐自清真.
門前想亦非凡客, 底事逡巡尙隱身?

배를 돌려 돌아오매 학도 사람을 쫓아와,
매화 곁에 한가히 앉으니 스스로 청진하다.
문 앞에 찾은 이도 아마 속객이 아닐 터인데,
무슨 일로 머뭇거리며 몸을 아직 숨기는가?

<서호에서 학을 벗하고, 김진사 신중[富儀]의 화폭에 적어준 절구 여덟
수 중의 한 수>(西湖伴鶴, 題金上舍慎中畫幅八絕之一)

湖上精廬絕俗緣, 胎仙棲託爲癯仙.
不須剪翮如鸚鵡, 來伴吟梅去入天. (以上《文集》卷三)

서호 곁 호젓한 집에서 속된 인연을 끊었으나,
학이 깃들은 매화 때문일세.
반드시 앵무새와 같이 날개죽지를 끊을 필요는 없으니,
날아와서는 나와 벗하여 매화꽃을 음미하다가 날아서 다시 하늘로 들어
가네.

역주=앞 시의 역문은 《국역퇴계집 I》 p. 44에서, 뒷 시의 역문은
졸역 《퇴계시학》 p. 135에서 수정 인용함.

앞의 시에서 「배를 돌려 돌아오매」(返棹歸來)는 곧 탄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학이 사람을 쫓아오니」(鶴趁人)은 곧 사람과 학의 구분이 이
미 없어졌다. 다음 구절 「매화 곁에 한가히 앉으니」(梅邊閒坐)에서는
한가로울 「閒」자를 두드러지게 나타냄으로써 스스로 옥육자적해진 심경

을 엿볼 수 있다. 매화가 맑고 진실되니, 사람도 또한 진실되다. 학과 매화와 사람이 한 폭의 한적한 세상 밖의 桃源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두 구절은 상상해서 設問을 해 본 말인데, 이로써 「孤山梅隱」 그림의 맑고 진실되고 세속과 떨어져 있음을 더욱 절실하게 그려내었다.

뒤의 시에서 「서호 곁 호젓한 집에서」(西湖精廬)는 은거하는 환경이 능히 세속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으니 정말 은사라는 것을 말한다. 다음 구절 胎仙이니 癯仙이니 하는 말은 은사의 친구들을 말한다. 태선은 학을 가리키고, 구선은 매화를 가리킨다. 신선 「仙」자를 한 자 붙임으로써 매화와 학은 이미 범연한 속세를 초탈하게 되며, 無知 無情에서부터 有知 有情으로,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체득한 靈性 세계로 올라오게 된다.

제 3구는 도리어 첫째 구절을 잇고, 마지막 구절을 다음 구절에 대응한다. 「날아와서는 벗하여 매화 꽃을 음미하고」(來伴吟梅)는 곧 은사가 그 가운데 자유롭게 있음이다. 「하늘에 들어가네」(去入天)은 곧 속세 밖으로 멀리 날아가서 사물 밖에서 거니는 것이다.

V. 貞士의 志節

눈이 매화를 얻으면 더욱 차고도 정결함을 얻게 되고 매화가 눈을 얻으면 더욱 굳세고도 곧음이 드러난다. 매화가 차고 고적함을 자처함은 은사의 정신을 상징하며, 매화의 참고 추위를 견뎌는 貞士의 정신을 상징한다. 퇴계는 은사의 소박한 마음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정사의 志節도 겸하여 갖추고 있다.

퇴계가 魏野를 평한 시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비로소 알겠네 위야라는 은사는 정말 은사가 아님을,
자기가 사는 곳을 임금이 그러가서 보도록 도박을 하였네.
(始知魏隱非眞隱, 賂律幽居帝畫看)¹⁸⁾

송 나라의 위야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 않고 여러 번 임금이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자, 眞宗이 사신을 보내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그려오게 하여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야에 대하여 「자기가 사는 곳을 임금이 그려가서 보게 하였네」(幽居帝畫看)라는 구절이 있으니, 「초당에 앉아서 은자의 생활을 훑쳐 본」(竊吹草堂) 마음이 없지 않다.¹⁹⁾

퇴계의 뜻은, 위야는 진짜 은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사의 情操도 정말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은사는 마땅히 참다운 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마음이 맑았을 뿐만 아니라, 지조를 지킴도 정말 굳었다.

선생께서는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함이 지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조정에 나아가실 때와 물러나서 은퇴하시는 명분은 만년에 가서 더욱 명확하시어 은연 중에 큰 용기를 간직하시고 만 길이나 되는 벼랑 위에도 태연하게 서시었다.²⁰⁾

그의 詠梅詩는 언제나 貞士의 정조를 간직하고 있다.

<김신중이 매화를 읊은 절구 시에 화답하여>(奉酬金愼仲詠梅絕句)

18) 《퇴계전서》제1책, 권2, p.92 <고산의 매화를 읊음>(孤山詠梅)

19) 「초당에 앉아서 은자의 생활을 훑쳐 본」(竊吹草堂) 이야기는 《照明文選》권 43, 孔雉圭의 <북산에다 조회하는 글>(北山移文)을 보라. 이름을 팔고 명예를 낚고자 하는 것을 이른 것임.

역주 : 중국 南朝 齊나라에 살았던 周顒이라는 가짜 은자가 강소성의 북산에 학관과 절을 세우고 이름을 草堂이라고 하며, 《장자》에 나오는 은자 南廓子 綦와 같이 생활(竿)을 훑쳐 불고, 함부로 은자의 관을 쓰고 다녔으나 뒤에 은자란 명성을 이용하여 나아가 벼슬을 하였다. 같은 나라의 문인인 공치규가 <북산의 산령 신령에게 조회하는 글>(北方移文)을 지어 그 소행을 혹독하게 비난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 「竊吹草堂」이란 문구가 나옴, 줄역 《퇴계시학》 p.135 참조.

20) 《퇴계전서》제4책, p.252 《퇴계선생언행록》권6, 朴淳의 <行略>

綽約天葩玉雪姿, 何妨春晚景遲遲?
細看冷艷彌貞厲, 不必清霜凍樹枝. —《文集卷五》

얇전한 하늘이 낸 아름다운 옥설과 같은 자태,
무슨 상관 있으리요? 봄이 늦어 구경거리가 늦게나 온 것이,
자세히 보니 차고 아름다우며 절개 더욱 매우니,
맑은 서리에 나뭇가지 얼었을 리 없겠지.

첫 구는 매화가 얇전하고 모양이 맑으며, 본래부터 아름다운 기질을 타고, 아름답기 옥 같고 눈 같다는 것이다. 다음 구는 「늦은 봄에 피어 구경거리로는 늦었지만」(春晚景遲) 그 참된 아름다움에 상관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두 구절에 이 시의 주지가 담겨져 있는데, 제 3구의 「자세히 보니」(細看) 두 자는 매화를 감상하는 거리에 접근한 것이고, 「차고 아름다우며」(冷艷) 두 자는 첫 구의 「옥설과 같은 자태」(玉雪姿)에 멀리 호응한다.

「차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절개 매운」 정조가 더욱 드러난다. 모진 바람에야 굳센 풀을 알게 되고 날씨가 추워져야 곧은 매화를 알게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다.

퇴계는 「맑은 서리에 나뭇가지 얼었을 리 없겠지」라고 말함으로써 비로소 추위에 견디는 매화가 절개가 곧고 매움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바로 매화를 매우 깊이 아는 것이다. 정조가 곧음으로써 매화의 본성을 말한다. 본성이 始終如一하다면 늦게 피든 일찍 피든 계교할 것이 없다.

퇴계의 또 다른 시구에 이르기를

꽃피는 향기로운 새벽이 일찍다 늦다고 비교하지 말라(莫把芳辰較早遲)²¹⁾

난초와 더불어 일찍 핀다 늦게 핀다는 것을 논의하지 말라(莫與國香論

21) 《퇴계전서》제1책, 권五, p.142 <삼가 김신중이 지은 매화를 읊은 절구 시에 화답하여>(奉酬金愼中詠梅絕句)

早晚²²⁾

라고 하였다. 이런 것은 모두 이 「맑은 서리에 나뭇가지 얼었을 리 없겠지」라는 뜻과 서로 같다.

雪虐風饕戰許條, 摧傷烈氣更貞松.
君廚俊及雖凋謝, 樹屋烟爐詎盡無?

눈의 포악, 바람의 탐욕과 몇 가지나 싸웠는가?
매운 기운 시달리나 곧은 절개 더욱 굳어지네,
君 廚 俊과 及이 비록 다 시들었으나,
나무집, 대장간에 불 넣던 이들조차 어찌 모조리 다 죽었다고 하리요?

이 시 앞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서문이 있다-

내가 金彦遇(이름은 富弼—역주)에게 시를 적어 보내는 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매화를 거기서 찾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도산에 매화가 있으니 스스로 위안이 된다」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언우가, 내가 사는 시내 곁으로 찾아와서 내가 도산서당에 마련한 화단[陶社]을 둘러보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화가 추위에 몹시 시달려서 꽃이 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반신 반의하면서, 언우가 지어 준 시를 가지고 읊조리면서 스스로 소일하면서, 또 언우에게 시 두 수를 지어 보이고자 하노라. (文集卷5)

이 시는 두 수 중 뒷 시다. 첫 구절에는 매화 가지가 용감하게 싸움을 벌이면서 눈의 포악, 바람의 탐욕(雪虐風饕)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다음 구절은 매화가 비록 「매운 기운이 시달리기」(摧傷烈氣)는 하나 더욱 그 굳굳하고 굽히지 않는 정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22) 《퇴계전서》제2책, 《外集》권1, p.549 <앞서 정존재가 보낸 편지 끝에 고개의 매화가 향기를 토하기에 때맞추어 한 가지를 보내어 드립니다...>(前日靜存書末有嶺梅吐芬時寄一枝)

이 시와 陸放翁(남송 시인 이름은 遊)의 「매화를 읊은 시」(詠梅詩)—
얼음과 서리에 시달리면서도 절개는 더욱 굳어지네(凌厲冰霜節愈堅)

역주=<사적산에서 매화를 구경하고>(射的山觀梅)라는 시의 한 구절<<瀛奎律髓>> 卷20 <梅花類>에 보임.

라는 시구와 곡조는 비록 다르나 숨씨는 꼭 같은 묘함이 있다.

매화가 바람과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곧고 모진 성격은 곧은 선비가
힘으로 위협하여도 굴복하지 않는 굳은 정조를 상징한다.

마지막 두 구절은 「매화 여덟 가지는 시들어도 매화 한 가지는 홀로
피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君과 廚, 俊과 及」은 여덟 매화를 비유한
다.²³⁾ 「나무집 대장간에 불 넣던 이들」(樹屋烟爐)는 한 가지의 매화에
비교된다.²⁴⁾

퇴계의 또 다른 시에는 이르기를

여덟 매화는 바람과 연기에 다만 빈 가지 뿐이나,
한 매화는 꽃 잔 몇 개 아직 피지 않았네.
(八梅風烟但空秋, 一梅數萼猶未開)²⁵⁾

23) <<後漢書>>권67, <당과싸움에 금고형을 당한 여러 선비들의 전기>(黨錮列傳)
: 「천하의 명사들을 지목하여 칭호가 지어졌는데, 첫째는 『三君』이요, 다음은
『八俊』이요, 다음은 『八及』이요, 다음은 『八廚』니, 옛날의 『八元』 『八凱』와 같
은 것이다.

역주 : 「君」이란 학계의 영수란 뜻이요, 「俊」이란 준수한 사람이란 뜻, 「及」이
란 남이 추종하여 그 수중에 미치고자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란 뜻, 「廚」란
재물로써 남을 많이 구제하여 준 사람들을 일컫는다. —위의 인용된 책의 원문
참조. 『八元』은 상고시대 高辛氏의 여덟 착한 신하, 『八凱』는 高陽氏를 즐겁게
해 준 여덟 신하.

24) <<後漢書>>권53 <申屠蟠傳> : 「반은 옛 양나라 땅, 탕이란 곳에 숨어서 뽕나
무에 의거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집을 만들어 스스로 머슴꾼들과 똑같이
처신하였다.」(乃絕迹於碭之間, 因樹爲屋, 自同傭人) 또 <<후한서>>권67 <夏馥
傳> : 「하복은 스스로 수업을 깎고 모습을 바꾸어 임려산에 들어가서 성명을
숨기고 대장간의 머슴꾼이 되었다. 손수 연탄을 구들에 넣으니 모양이 불뚝없
이 되었다.」(自剪須變形入林慮山中, 隱匿姓名, 爲治家傭, 親突烟炭, 形貌毀瘁)

라고 하였다. 이것이 곧 위의 시 마지막 두 구절에 대한 가장 좋은 脚註가 될 것이다.

위의 시는 퇴계의 매화를 읊은 시들 중에는 가장 특수하다. 시 중의 「君·廚·俊·及」은 본래 「학계 영수 셋」(三君), 「경제적으로 남을 도와준 사람 여덟」(八廚), 「준수한 문이 여덟」(八俊), 「남이 추종하여 미치고자 하는 이 여덟」(八及)을 가리키는데, 후한 시대에 당과 싸움에 피해를 입어 금고형을 당한 여러 명사들을 지칭하는 칭호다. 또 「나무 집」(樹屋)과 「불 넣는」(烟爐) 따위 말도 또한 모두 후한 시대의 어진 선비들을 가리킨다.(註 25와 같음)

여기서 우리들은 퇴계의 매화시의 곧은 선비의 意象이 이미 추상적 情操에서 구체적인 典範으로 바뀌어짐을 볼 수 있다. 곧은 선비[貞士]의 의상이 구체적으로 심령 가운데 존재할 때에 곧 「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잊게 되고, 뜻을 얻으면 말을 잊게 되는」 경지가 있게 된다.²⁶⁾

퇴계의 매화를 읊은 시에는 그 상징적인 의의가 위에서 논한 네 가지 것을 벗어남이 없다. 이 네 가지 중에서 美人과 仙人이 한 유가 되며 隱士와 貞士가 한 유가 된다. 전자는 순진한 아름다움을 표현함에 있고, 후자는 순수한 착함(善)을 표현함에 있다. 이 순진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착함은 퇴계의 심령세계의 반사와 다를 바가 없다.

VI. 寫實性

사람의 목소리 중에 정교한 것이 말이 되고, 사람의 말 중에도 정교한

25) 《퇴계전서》제1책, 권5 p.161 <도산의 매화가 겨울 추위에 상한 것을 보고 김언우에게 탄식하는 시를 지어 보내노라. 아울러 그 아우 신중과 돈서도 함께 보기를 바라며>(陶山梅爲冬寒所傷, 歎贈金彦遇, 兼示慎中·惇叙)

26) 莊子<外物> : 「통발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뜻을 담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뜻을 얻으면 말을 잊게 된다.」(荃者所以在魚, 得魚而忘荃 ……言者所以在意, 得意而忘言)

것이 시가 된다. 「글은 사람과 같다」(文如其人)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시는 그 사람과 같다」(詩如其人)라고 함이 더욱 정확할 것 같다. 邵堯夫(호는 康節, 이름은 雍, 송나라의 철학자—역주)는 이르기를

이미 말로써 문장을 이루었으니,
드디어 마음 속에 있는 일을 이야기 하네.
(既用言成章, 遂道心中事)²⁷⁾

라고 하였다. 「말이 문장을 이룬다」는 것은 시의 형식이요, 「마음 속에 있는 일」은 시의 내용이다. 퇴계의 매화를 읊은 시는 내용에 관하여 말하면, 그 상징성적인 의의가 항상 美人·仙子·隱者·貞士와 연결되어 풀지 못할 인연을 맺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순진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착함을 표현하고, 정신상의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天人合一] 숭고한 인격을 나타내게 된다.

이 외에도 퇴계의 매화를 읊은 시에는 오히려 寫實性·體物性·感悟性·輔仁性·靈動性 등의 意境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의경의 내용을 가지고 퇴계가 매화를 읊은 시들의 풍격을 분석하여 본다면, 마땅히 비교적 납득이 가고 또 믿을 만한 것이다.

사실 작품의 風格과 작자의 인격은 끊임없는 관련이 있다. 작품의 풍격을 분석하여 작자의 인격을 해석하여 보면 비록 꼭 들어 맞지는 않지만, 차이가 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퇴계의 詠梅詩의 寫實性을 먼저 논하겠다. 소위 사실성이란 사물의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니, 한 조각의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왕왕 어떠한 의경을 나타 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시인이 주관적인 선택자료를 거치고 교묘한 조합을 가하여, 생활에 대하여 가장 대표성을 갖춘 내용을 표현하여 내며, 그것으로써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곧 자

27) 邵雍의 《伊川擊壤集》권11 <시를 논하여 읊음>(論詩吟)

연 사물을 끊어서 종합함으로써, 그것을 情趣化하고 예술화한다.

퇴계의 다음의 <매화>와 같은 것은

溪邊粲粲立雙條, 香度前林色映橋.

未怕惹風霜易凍, 只愁迎暖玉成消.

(文集卷3, p. 98)

시냇가에 아름다운 매화 두 가지가 피었는데,
맑은 향기는 앞 숲에 이르고 고운 빛깔은 다리 아래 미치네,
바람이 일고 서리에 쉽게 얼까 두렵지는 않으나,
다만 근심스럽네, 더위를 맞아서 옥같은 꽃 시들어질 것이.

앞의 두 구는 풍경을 묘사하고, 뒤의 두 구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름다운 두 가지의 매화가 옥같이 시냇가에 서서 있다는 것으로 먼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적고 있다.

「향기가 앞 숲에 이르고」(香度前林)는 시각적인 것을 경유하여 미각적인 것에 이르고, 「빛깔은 다리 아래 비치네」(色映橋)는 또 다시 시각적인 것으로 되 돌아온다.

이 때에 아름다운 매화 성근 두 가지는 앞의 숲 냇물의 다리와 더불어 한 폭의 그림을 구성하며, 그 위에 색도 있고 향도 있으며, 그 향과 색이 모두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있다. 색은 눈을 즐겁게 하고 향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풍경을 묘사하되 풍경 중에 감정이 들어간다. 바람과 서리에 쉽게 얼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매화가 추위에도 초연한 기골을 엿볼 수 있으며, 다만 더위를 맞아서 옥같은 꽃이 시들까 두렵다는 것에서 봄을 아끼는 부드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다시 도산의 매화를 방문하고—절구 10수>(再訪陶山梅十絕) 중에는 다음과 같은 두 수가 있다.

手種寒梅今幾年? 風烟蕭灑小窗前.

昨來香雪初驚動, 回首群芳盡索然.

一花纔背尙堪猜，胡柰垂垂盡倒開。
 賴是我從花下看，昂頭一一見心來。
 (文集卷五, P, 138~139)

손수 찬 매화를 심은지 지금 몇 해나 되었는가?
 바람과 연기 속에서도 말끔히 솟아나 작은 창문 앞에 서 있네.
 어저께 눈 속에 핀 매화 향내에 처음으로 놀라서,
 돌아보매 못 꽃들 모두 삭막하게 보이네.

꽃 한송이만 뒤집혀 피어도 오히려 남의 의심을 받기 쉽거늘,
 무엇 때문에 줄줄이 늘어져서 모두 거꾸로 피었는가?
 이 때문에 내가 꽃나무 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고개를 쳐드니 꽃 술이 하나 하나 눈에 들어 오네.

뒷 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계의 주석[自註]이 있다.

꽃 한 송이……라고 한 것은 송나라 楊誠齋의 시에 「꽃 한 송이가 무뢰하게도 사람을 등지고 피었네」(一花無賴背人開)라고 한 것이 있는데, 나는 이 重葉梅를 남쪽 지방에 있는 친구에게 얻었는데, 그것이 꽃을 피우면 하나같이 모두 땅을 향하여 거꾸로 늘어져 있어 곁에서 보면, 꽃 술을 볼 수가 없고, 반드시 나무 밑에서 얼굴을 쳐들고 보아야만 꽃 술을 하나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동실동실한 것이 사랑스럽다. 두보 시에서 소위 「강변에 매화 한 나무 고개 숙이고 피어 있네」(江邊一樹垂垂發)이라고 한 것이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매화를 지적해서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역주=誠齋의 이름은 萬里. 남송 4대 시인 중의 한 사람. 여기 인용한 시의 제목은 <매화 꽃 아래서 술을 조금 마심>(梅花下小飲)―《瀛奎律髓》卷20, <梅花類>

다음에 인용된 두보 시의 제목은 <배적이 촉주의 동정에서 나그네를 송별하는데 일찍 핀 매화 꽃을 보고서 생각이 나서 보내어 준 시에 화

답하여 지음>(和裴袖發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인데, 위와 같은 책(卷 20)과 《杜詩引得》21~38 p.352에 보임.

앞 시의 起句는 의문투를 사용하였다. 「손수 찬 매화를 심은 것」(手種寒梅)이 벌써 몇 년이나 되었는가? 퇴계가 어찌 그것을 모를 것인가? 그러나 지금 의문투를 쓴 것은 마치 「막연하게 덮어두기가 어려운 듯, 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대개 이러한 데 대한 「관심」[有心]은 흔적이 문혀 있음을 면하기 어렵다. 매화를 심은 뒤로는 아직까지 잊고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작은 창문 앞에 세상의 모진 바람과 연기를 이기고 말끔히 솟아나 있다고 한 것에서 일종의 몽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며, 특별한 운치를 느끼게 된다.

「향내와 눈」(香雪)은 아름다운 풍경이며, 「놀라서」(驚動)는 참된 감정이다. 이러한 「향내와 눈」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놀라느」 마음이 생겨난다. 「향내와 눈」 때문에 「놀란다」는 것은 靜에서 動에 이르러 감정과 풍경이 서로 융화된 것이다. 말끔히 솟아난 것이 눈에 보이고, 즐거움이 마음 속에 있게 된다.

「어저께」와 「몇 해」는 시간상 강렬한 대비가 된다. 「손수 심은지 몇 해」라는 원인을 통해서 「어저께 눈 속에 핀 매화」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러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보게 된다.

「놀라운」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놀란」 나머지, 갑자기 고개를 둘러보니, 「뭇 꽃들이 모두 삭막하게」 보인다. 이 「삭막하게」와 「놀라서」는 또한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삭막하게」는 갑자기 슬퍼져 失色하는 것이니, 적막함이 지극한 것이다. 「놀라서」(驚動)는 찬란함이 눈을 즐겁게 하고, 그윽한 향내가 코에 와 닿는 것이다.

뒤의 시는 퇴계가 스스로 단 주석에 의하면, 이 매화는 「꽃잎이 겹으로 된 매화」(重葉花)로 꽃잎이 몇 층씩 포개어져 있으니, 바로 매화 중에도 기이한 물건이다.²⁸⁾ 그 꽃은 모두 땅을 향하여 거꾸로 늘어져 있

는데 곁에서 보면 꽃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퇴계는 나무 아래서 위로 쳐다 보자 비로소 꽃 속을 하나 하나씩 볼 수가 있었다. 이 시를 통하여 퇴계의 사물을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 관찰하여 보는 세심함과 자연을 감상하는 태도 등을 볼 수 있다.

퇴계의 이 시는 명 穆宗 隆慶 정묘년에 지은 것이니, 이 때 퇴계의 연세가 이미 67세였는데 아직도 이러한 고요한 정취와 빼어난 운취를 간직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예술이란 情趣의 활동이요, 정취는 생명의 活水이며, 또한 작시의 「動原」이 된다.²⁹⁾ 맹자는

큰 사람이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³⁰⁾

라고 하였다. 퇴계의 영매시의 寫實性은 정취활동의 표현이며, 또한 「어린 아이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VII. 體物性

소위 體物이란 體는 《중용》에서 말하는 못 신하들의 몸을 받아들여 자기의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뜻이니, 몸으로 받아들여 살핀다[體察], 몸으로 받아들여 구휼한다[體恤]는 뜻이 있다. 몸으로 받아들여 살핀다는 것은 이해요, 몸으로 받아들여 구휼함은 동정이다.

퇴계가 매화를 사랑함은 자기의 몸을 그 처지에 놓고, 매화를 자기와 같이 보며, 병들고 아픈 것을 서로 관련짓고, 가련히 여김과 사랑함을

28) 范成大的 《梅譜》: 중엽 매화는 머리가 매우 크고, 꽃잎은 몇 겹이나 되며 활짝 피면 마치 작은 백련꽃(小白蓮)과 같다. 매화 중에 기이한 것이다.

29) 「動原」이란 곧 동력의 근원이다. 牟宗三 선생의 <中國文化大動脈中的終極開心問題>, (1983. 9. 28 《聯合報》)를 보라.

30) 《맹자》 <辭婁篇> 하.

구비한 것이다. 퇴계가 도산의 매화가 겨울 추위에 상한 것을 보고 지은 시 <김언우에게 탄식하며 부치노라—아울러 신중과 돈서에게도 보임>(歎贈金彦遇, 兼示慎仲·惇叙)은 다음과 같다.

昨日梅社共君來, 梅興索漠令人哀.
 八梅風烟但空枝, 一梅數萼猶未開.
 杖藜吟梅遶百匝, 冥頑胡爲我梅厄?
 不比君家梅得暖, 梅社風多寒更虐.
 我欲賤天籲梅冤, 我欲作辭招梅魂.
 梅冤悄結天所憐, 梅魂歸來我所溫.
 (文集卷5, 葉161)

어저께 매화 밭에 그대와 함께 와서 보았더니,
 매화는 흥이 시들어 나를 슬프게 하였네.
 여덟 매화 나무는 바람과 연기에 시달려 다만 빈 가지 뿐이요,
 한 매화 나무는 꽃 잔이 몇 달렸으나 아직 피지도 않았네.
 명아주 막대기 짚고 매화를 읊으면서 백 바퀴나 돌았는데,
 미련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의 매화를 병들게 하였는가?
 그대의 집 매화가 따뜻함을 얻은 것에 비할 바 못되어,
 우리 매화 밭에는 바람도 많고 추위 더욱 모지네.
 나는 하늘에 편지를 띄워 매화의 원통함을 호소하고도 싶고,
 나는 글을 지어 매화의 혼을 불러 보고도 싶네.
 매화의 원혼 슬프게 맺힌 것 하느님이 가련히 여기시는 바요,
 매화 혼 돌아옴 나는 따뜻하게 여기는 바일세.

역주=이 시의 전문은 줄역, 《퇴계시학》 P, 138에 번역되어 있음.
 그러나 여기 인용한 대목의 역문은 이 책의 번역과 일치하지는 않음.

梅社—《퇴계시학》 p.138 이 시의 역주를 보라.
 冥頑-사리에 어둡고 완고함. 頑冥-서울 민중서관 《漢韓大字典》p.149
 《퇴계전서》원본들(成大, 大東文化研究院 영인본·精神文化研究院 영인
 《陶山全書》 등)에서는 모두 <冥頑>으로 되어 있음. 영남대학의 홍우흠 교수는 이 구절을 「顛頑은 어찌하여 나의 매화를 죽였는고!」로 번

역하였음. —〈퇴계의 《梅花詩帖》에 대한 연구〉, 嶺大, 《人文研究》, 제4호(1983) p.115.

이 시는 매 구에 「梅」자를 썼고, 퇴계가 이 시 제목 다음에 단 주석 [自註]에는 「도연명이 지은 <술을 끊는다>는 시와 왕안석이 지은 <학문을 권한다>는 시의 체를 본받아 쓴다」(效陶淵明止酒, 王介甫權學詩體)라고 하였으나 감정은 다르다.

도연명의 <술을 끊는다>는 시는 해학을 위하여 쓴 것이나, 퇴계의 이 시는 민망하게 여겨서 구휼하고 싶은 마음에서 쓴 것이다. 소위 「매화는 흥이 시들어 나를 슬프게 하였네」(梅興索漠令人哀)에서 이 「哀」자는 실은 이 시 전체의 강령이다. 여덟 매화가 빈 가지만 남은 것을 슬퍼하고, 꽃 잔 몇 개가 피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명아주 막대기를 짚고 매화를 읊으면서」(杖藜吟梅)도 역시 매화를 두고 슬프게 읊조리는 것이며, 매화의 주위를 백 바퀴나 돈다는 것에서 더욱 슬픈 감정을 엿볼 수 있다.

슬퍼져 「하늘에 편지를 띄워 매화의 원통함을 호소하고」도 싶고, 「글을 지어 매화의 혼을 불러」 보고도 싶어짐은 일종의 어찌할래야 어찌할 수도 없는 아픔이요, 슬프고 실망되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울고도 싶고 호소하고도 싶음이 표현을 넘어 보인다.

퇴계에게는 <매화를 꺾어 서가 위에 놓아 둬>(折梅插置架上)이라는 절구 시가 있는데 역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체득한 훌륭한 結構를 갖춘 작품이다. 시는 다음과 같다.

梅萼迎春帶小寒, 折來相對玉窗間。
故人長憶千山外, 不耐天香瘦損看。
(文集卷4, p.132)

매화 꽃 잔 봄을 맞아 잔 추위를 떠고 있는데,
꺾어 와서 서로 대하고 있네, 옥 창문을 사이에 두고
천 산 바깥에 있는 옛 친구를 한참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자연스러운 향기 마르고 시들어짐 차마 오래 보지 못하네.

매화를 사랑한다면 매화를 꺾어서는 안 될 것이나, 우연히 한 가지 쭝 꺾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듯하다. 이 시의 앞 두 구는 봄을 맞아서 매화를 꺾어 서가 위에 꽂아두고, 옥 창문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물건을 보니 생각이 떠올라 다음 구절의 뜻이 일어나게 된다.

옛 친구를 한참 동안 기억하여 보니, 멀리 천 산 바깥에 있으나, 매화를 책상 머리에 꺾어다가 둔 게 자연스러운 향기가 마르고 시들어져서, 차마 오랫동안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마지막 구절은 자못 가련하고 아끼는 정이 깃들여 있다. 정말 매화를 꺾어다가 꽃을 감상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에도 어긋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이다.

어진 사람의 마음은 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기 때문에 초목이 꺾인 것을 보고 가련하게 여겨서 구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퇴계가 몹시 사랑하는 매화 어찌 아무 까닭없이 꺾어짐에 있어서랴?

퇴계의 다음과 같은 <김언우의 시에 화답하여>(和金彦遇)라는 시를 보면, 더욱 그 깊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奪性移天斷折餘, 猶供佳玩待人蘇.
何如拓地栽成百? 香滿乾坤不淡枯.
(文集卷五, p, 151)

본성을 빼앗기고 천성을 옮기어 끊어지고 부러진 뒤에도,
오히려 아름다운 구경거리를 제공하려고 사람들을 기다려서 소생하네.
어떻게 땅을 일구어 키워서 백여 그루나 이룰 수 없겠는가?
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하여 담담하고 매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화 가지를 끊어서 좋은 구경거리로 제공하는 것은 「본성이 빼앗기고 천성을 옮기는 것」(奪性移天)이며, 살아날 계기를 막는 것이니, 시들게 하면서도 소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태가 민망한 데 이르고

있다. 이것이 앞 두 구의 뜻이다. 만약 이러한 매화 가지를 땅을 일구고 옮겨 심어 재배하여 백 그루나 되게 할 수 있다면 탄 날 매화 숲과 눈 바다[梅林雪海]를 이루어 「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하여, 답답하고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에 순종하고, 사물의 본성을 다 발휘하게 하는 것이며, 매화는 그 삶을 이루고, 사람은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뒤의 두 구절의 뜻은 어진 자가 온화하게 사물을 살피려는 마음이다.

VIII. 感悟性

소위 感悟性이란 시구가 사람이 깊이 성찰해야 할 곳을 개발하여 주는 것을 두고 말한다. 공자가 말한 興·觀·群·怨³¹⁾ 중에는 모두 감오성을 띄고 있다. 더욱 興과 觀 두 가지가 더하다.

興은 情에 치우치고, 觀은 理에 치우친다. 그러나 정에서 감동되어 나온다고 하여도 理를 떠날 수 없으며, 理에서 고요히 관찰한다고 하여도 정이 없을 수 없다. 사실은 情과 理는 상통하는 것이며, 情과 景은 相感하는 것이다.

퇴계의 <도산에서 달 밤에 매화를 읊음—여섯 수>(陶山月夜詠梅六首) 가운데 두 수

獨倚山窗夜色寒, 梅梢月上正團圓.
不須更喚微風至, 自有清香滿院間.
步屨中庭月趁人, 梅邊行遶幾回巡?
夜深坐久渾忘起, 香滿衣巾影滿身.

31) 《논어》<陽貨篇> : 「공자는 말씀하시었다. 자네들은 어찌하여 시를 공부하지 않는가? 시로써 흥겹게 할 수 있고, 관찰하게 할 수 있고, 무리에 어울리게 할 수 있고, 원망을 표현하게 할 수 있다.」(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文集卷五 · p,151)

홀로 山窗에 기대어 밤 빛이 차가운데,
 매화 가지 끝에서 둥근 달이 떠오른다.
 이제 새삼 실바람을 불러 올 것 없나니,
 맑은 향기 스스로 온 동산 안에 가득하다.
 홀로 뜰 안을 거니노라면 달이 사람을 따른다.
 매화 곁을 돌고 돌아 몇 바퀴나 돌았단고?
 밤이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날 줄 모르니,
 향기는 옷에 차고 그림자는 몸에 찻네.

역주= 《국역 퇴계집》 p. 58에서 역문 인용.

매화와 명월은 두 가지가 서로 잘 어울려 더욱 드러난다. 퇴계의 영 매시는 흔히 달을 빌어서 매화를 드러나게 만든다. 밤은 물과 같이 서늘한데 달은 매화나무 끝에 떠올라 맑은 달빛과 성근 매화나무의 그림자가 서로 비추어 운취를 자아낸다. 더러는 산창에 홀로 기대어 매화를 구경하고 달을 감상하기도 하며, 더러는 매화 주위에서 한가하게 산보하면서 달을 보고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한다.

이 때에 온갖 소리가 모두 적막하여지고 마음이 환경에 적합하고 맑은 향기가 소매에 가득하며 성근 매화의 그림자가 온몸에 가득차서 오래 앉아 있으니 일어남을 잊게 되며, 저절로 도취됨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순진 無邪하고 영예와 굴욕을 모두 잊어버린 경지가, 고요하고 담담하며 욕심이 적은 퇴계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말로써 비유하기 어려운 즐거운 운취를 자아내게 한다. 名리에만 열중한 속물들에게는 한 첩의 청량제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 퇴계의 <어관포가 지은 동주도원을 읊은 절구시 16수의 운자에 맞추어 지은 시>(次魚灌圃東州道院十六絶)과 같은 시가 있는데, 그 중의 한 수는 다음과 같다.

心煩野事爲塵事, 機靜官家卽道家.
 目擊可能無妙處, 爲令官閣種梅花.
 (別集卷一, p.500)

마음 번거로우면 초야의 일도 세속의 일이 되고,
 機心이 고요하면 관가가 곧 도가가 되네.
 눈에 보이는 것이 묘한 것이 없을 만한 곳에,
 관각으로 하여금 매화를 심게 하였네.

역주=이 시의 제목에 관하여서는 줄역 《퇴계시학》 p. 61을 보라.

이 시의 앞 두 구는 對로 되어 있는데, 퇴계의 칠언 절구시 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보이는 것이다. 「초야의 일」(草野事)은 간단하고 소박하지만, 「세속의 일」(塵事)은 번잡하고 자질구레하다. 「官家」는 시끄럽지만, 「道家」는 고요하다. 「機」란 機心을 말하는데, 기심이라는 두 글자는 《장자》에 보인다.³²⁾

이 두 구는 환경이란 마음에 따라서 조성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楞嚴經》에는 「마음이 미혹되면 법도 변화하게 돌아간다」(心迷法華轉)고 하였고, 도연명은 「마음이 속세와 머니 사는 땅도 스스로 편벽된 것 같네」(心遠地自偏)라고 하였는데 모두 이와 같은 뜻이다. 마음이 깨달으면 환경을 개조할 수 있고, 환경이 그윽하면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제 3구 「눈에 보이는 것이 묘한 것이 없을 만한 곳에」라는 것은 축늘어진 표현으로 마지막 구절의 발단을 삼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묘한 것이 없을 만한 곳에」라는 것은 「관각에 매화가 없기」 때문이다. 매화의 맑고 참되고 속세와 인연을 끊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상쾌하고 정신이 화평하게 만들 수 있어 오묘함이 스스로 그 안에 있

32) 《장자》<天地篇> : 「일을 교묘하고 약게 해치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묘하고 약은 생각이 있게 된다.」(有機事者, 心有機心).

다.

마지막 구절은 「용을 그리는데 마지막으로 눈동자에 점을 찍어」(畫龍點睛) 전체 그림이 살아나게 함과 같으니 숨기고 있는 뜻이 매우 깊고도 넓다.

사실 매화의 「묘함」(妙處)은 그 사람을 기다려서 있는 것이다. 그 사람됨이 담박함을 스스로 즐겨하며 겸손함을 스스로 기르며, 스스로 자연을 애호할 수 있으면, 그 깊은 애정과 빼어난 취미가 매화에 옮겨 갈 수 있을 것이다. 매화가 이러한 지기를 얻으면, 비로소 호젓한 마음과 고결함을 나타내어 눈과 서리에도 초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명예와 이익에만 매어 있다면, 비록 매화를 많이 심는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IX. 輔仁性

소위 輔仁性이란 曾子의 「벗으로서 어짐을 도운다」(以友輔仁)이란 말에서 취한 것이다.³³⁾ 퇴계는 매화를 벗으로 삼고, 매화를 형으로 불렀으니, 매화에게서 바탕을 취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증자의 「벗으로서 어짐을 도운다」고 한 것은 당시의 사람을 지적해서 한 것이다. 퇴계의 영매시는 오히려 옛 사람들을 벗한다는 뜻도 겸하고 있다.

퇴계의 <감회를 불임—절구시 5수>(寓感五絶)의 마지막 수에는 다음과 같이 이르고 있다.

絶豔風流玉雪眞, 開時休怪混芳春.
太平當日濂溪老, 光霽襟懷映俗塵.
(文集卷5, p.128)

33) <<논어>><顔淵篇>.

지극히 아름다운 풍류는 옥과 눈과 같이 참되니,
 필 때를 괴이하게 여길 것 없네, 온갖 봄 꽃들과 어울렸다고.
 태평성대를 당하여 살던 주렴계와 같은 늙은 이는
 가슴 속이 환하고 개여서 속된 티끌을 비추네.

이 시는 매화가 늦게 피어 비록 못꽃들과 서로 섞여 있으나, 그 옥과 눈 같이 맑고 참됨과 지극히 아름다운 풍류는 스스로 못 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마치 북송 때에 周子 濂溪가 비록 태평성세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씨는 씻은 듯이 맑아서 마치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도 같고 비 갠 뒤에 비치는 달과도 같아서[光風霽月] 속세의 먼지를 말끔히 비치되, 오염됨이 없다는 것이다. 퇴계가 표현을 넘어서 비치고 있는 뜻은 은연중에 주렴계의 환하고 개인 마음씨를 가져다가 자기와 견주고 있다.

또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조림—여섯 수>(陶山月夜詠梅六首)의 마지막 한 수는 다음과 같다.

老良歸來感晦翁，託梅三復嘆嗟同。
 一杯勸汝今何得？千載相思淚點胸。
 (文集卷5, p.151)

간재 돌아오매 주희옹을 감탄하게 하여,
 매화에 의탁하여 세 번이나 되풀이 하였네, 부끄러움을 한탄한 것이 꼭 같다고.
 「한 잔을 들어 그대에게 권하네」라고 하신 말씀 지금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오랜 세월을 생각하여 보니 눈물만 가슴을 적시네.

老良은 주자(晦翁)의 제자 魏元履를 말하는데, 자는 良齋다. 주자는 일찍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소동파의 운자를 사용하여 함께 매화를 읊었는데, 마침 위원리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다시 이 시를 지어서 뜻을 여기 띄워 보낸다>(與諸人用東坡韻共賦梅花，適得元履

書, 有懷其人, 因復賦此, 以寄意焉)³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 가운데

복사꽃 오얏꽃과 더불어 봄날 경치를 다투는 것이 부끄럽네(羞同桃李媚
春色)

한 잔 술을 그대에게 권하는 나의 뜻 얕은 것이 아니니(一杯勸汝吾不
淺)

이라는 구절들이 있다. 퇴계의 이 시의 앞 두 구는 주자와 여러 사람들이 이 매화를 읊은 이야기를 썼으나,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뜻은 다르다.

퇴계는 대개 간재에다가 자기를 비유하였다. 「간재 돌아오매」는 자기가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비유하였다. 그 다음 구절의 뜻은 흡사 조정에 있을 당시를 몰래 지적한 것 같은데, 소인들과 더불어 대열을 같이 한 것을 부끄러워한 것 같다.

셋째 구절은 도리어 주자 시의 뜻을 따다가 썼다. 「지금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는 자기가 주자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탄식한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주자를 생각하니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생각하여 보니」(千載相思)는 그 오래됨을 매우 강조한 것이나, 사실을 고증하여 보면 퇴계의 생년과 주자의 卒年은 그 간격이 불과 삼백년 밖에는 되지 않는다.³⁵⁾

퇴계의 <도연명의 음주시에 화답하여 지음>(和陶集飲酒)이라는 시에는

내가 옛날 사람을 생각해 보니,
건양 땅 노봉에 계셨네.
(我思千載人, 蘆峯建陽境)³⁶⁾

34) 《朱子大全》권二, p.六.

35) 朱子は 宋 寧宗 慶元 6년 경신(서기 1200)년에 작고하였고, 퇴계는 明 孝宗 弘治 14년 신유(서기 1501)년에 났으니, 301년이 떨어졌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과 결구를 갖는다. 이 시와 두보의,

오랜 세월을 슬프게 되돌아 보며 한 번 눈물을 흘리니, 쓸쓸하도다, 시
대가 달라서 때를 함께 하지 못함이어!
(悵望千秋一灑淚, 蕭條異代不同時)³⁷⁾

역주=전국시대 초나라 말기의 시인 宋玉을 생각하여 쓴 것임.

이라는 구절은 실로 감개가 똑같다.

다음에 드는 <스무 하룻날 우연히 씬>(二十一日偶題)이라는 시에는
역시 옛 사람들을 숭상하여 벗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梅花初發郡舍東, 客子臥病愁思中.
冷雨淒風殊未已, 天香國艷無與同.
襄陽自古稱樂國, 李白狂歌詔山翁.
只今耆舊無多存, 誰是鹿門龐德公?
(文集卷4, p.133)

매화 처음 피어 군청 동쪽에 있는데,
나그네는 병들어 누워 근심에 잠겨 있네.
찬비 처량한 바람 유독히 멋지를 앓았는데도,
하늘이 준 향기 나라에 으뜸가는 아름다움은 탄 꽃과 같지를 앓네.
양양 땅을 옛날부터 즐거운 곳이라고 일컬었기에,
이태백은 미친 노래로 산옹을 과장하네.
다만 지금 옛 늙은이들 많이 남지 않았으니,
누가 바로 녹문의 방덕공과 같은가?

36) 《퇴계전서》제1책, 《문집》권1, p.72 역주=《퇴계시학》 p.30을 보라.

37) 《杜詩鏡銓》권13 p.651 <고적들을 보고서 느낌을 읊음>(詠懷古跡), 臺北, 華正書局 영인본.

이 시는 첫 구절은 풍경을 묘사하고, 다음 구는 감정을 이야기하며, 셋째 구절은 둘째 구절을 잇고, 넷째 구절은 첫구를 잇는다.

「나그네 병들어 누워」 근심이 끊임 없다. 「찬비 처량한 바람」은 더, 슬픈 마음을 더하여 준다. 그러나 매화의 「하늘이 준 향기 나라에 으뜸 가는 아름다움」은 스스로 만 꽃들과는 다르게, 「찬비 처량한 바람」에도 역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 5, 6구는 이태백의 <襄陽歌>에 있는 일을 쓰고 있다.³⁸⁾ <양양가> 중의 「山翁」은 곧 방덕공이다. 퇴계의 뜻은 산림에 있었고, 마음은 방공의 세상을 숨어산 높은 풍모에 있었다.³⁹⁾ 마지막 두 구절은 개탄과 의문으로 끝을 맺었는데 여운이 넘치고 있으니, 방덕공을 자신에 견주어 본 뜻이 없지도 않다.

같은 시대의 사람을 벗으로 여겨서 말한 것 중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김언우에게 보내노라>(贈金彦遇)는 시가 있다.

後凋主人堅素節, 除書到門心不悅.

坐待梅花冰雪香, 目擊道存吟不輟.

(文集卷5, p.151)

후조당 주인은 평소에 절개가 굳어,

벼슬을 내리는 글이 문에 이르러도 마음이 즐겁지 않네.

앉아서 매화가 얼음과 눈 속에서 향기로운 때를 기다리니,

보자 마자 道가 있어 읊조리기를 그치지 않네.

38) 이백의 <襄陽歌> : 「겉에 사람이 잠깐 몰았네, 「무엇을 그렇게 웃느냐」고, 길목에 있던 아이들의 대답 「산옹이 취하여 진흙벌레처럼 된 것이 우스워 죽겠 습니다.」 천금이나 나가는 좋은 말을 어린 소첩을 주고, 바꾸고 웃으며 좋은 안장에 앉아 떨어지는 매화 꽃을 노래하네」(彦人借問笑何事? 笑殺山翁醉如泥. 千金駿馬換小妾, 笑坐雕鞍歌落梅)라는 구절이 있음.

39) 龐德公은 곧 <後漢書><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전기>(逸民傳)에 나오는 龐公을 말하는데, 「南郡 襄陽人으로 峴山의 남쪽에 살고, 한번도 성 안에 들어간 일이 없었으며, 내외간에 마치 손님처럼 공경하였다. 荊州 刺史 劉表가 여러번 초청하여 모시려 하였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뒤에 그 처자들을 데리고 鹿門山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살면서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金富弼은 字가 彦遇이고 호는 後凋堂인데, 퇴계의 제자였기 때문에 「後凋堂主人」으로 불렸다. 「평소에 절개가 굳어」(堅素節)는 「후조당 주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조이다.

역주=金富儀(자는 愼仲, 호 挹淸)의 형, 金富倫(자는 惇叙, 호 雪月堂)의 사촌형임.

다음 구는 위의 구절을 긴밀하게 잇고 있는데, 「除書」란 오늘날의 임관 명령[任官令]과 같고, 「마음이 즐겁지 않네」(心不悅)는 벼슬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평소의 절개가 곧음을 바로 볼 수 있다.

셋째 구의 「얼음과 눈 속에서 향기롭다」(冰雪香)고 한 것은, 얼음의 맑음·눈의 흰·맛의 향기로움을 이야기하니, 이 세 자에서 매화의 특질을 두루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얼음과 눈 속에서 향기로울 때」를 「앉아서 기다린다」(坐待)는 것은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의 아름다움만을 감상하는 것에 불과한데, 마지막 구절에 「보자 마자 도가 있어」(目擊道存)는 《장자》〈田子方〉편의 공자가 溫伯雪子를 만난 이야기를 이끌어다가 쓴 것이니 이 매화를 만난 것이 마치 온백설자를 만난 것과 같아서 서로 정신이 합해지고 마음이 맞게 된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니 묘함이 모두 말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

퇴계의 또 다른 시구에는

종일토록 수염을 어루만지며 외롭게 읊조리고 감상하니,
묘한 곳 마치 온백설자를 만난 듯하구려!
(撚鬚終日孤吟賞, 妙處如逢雪子然)⁴⁰⁾

라는 것이 있는데, 곧 이 시 마지막 두 구절의 뜻과 같다. 그러니 그

40) 《퇴계전서》제1책, 《문집》권5, p.138:〈다시 도산의 매화를 찾아서—열수〉(再訪陶山梅十絕) 중의 제 3수.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기는 마음은 역시 이것을 통하여 아낌없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X. 靈動性

소위 靈動性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物相을 주관적인 상상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고 靈性을 깃들게 하며,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게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생동하게 하며, 감정과 풍경이 서로 융합되게 하고 사물과 내가 서로 감정을 교류하게 되는 경지를 말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두 수의 시에는

其一

喚取山家酒一壺, 適然相值更吾徒.
梅邊細酌梅相勸, 不用麻姑急掃除.
(梅下贈李宏仲, 文集卷5, p.148)

其二

晚發梅兄更識眞, 故應知我怯寒辰.
可憐此夜宜蘇病, 能作終宵對月人.
(陶山月夜詠梅六首之四, 文集卷五, p.151)

첫째 시

촌 사람을 불러내어 술 한병을 가져왔더니,
마침 그 때에 다시 우리 친구들과 서로 만나게 되었구려,
매화 곁에서 조금씩 잔질하다가 매화와 서로 권하니,
마고선녀도 때문에 급하게 소제 할 것도 없네.

둘째 시

늦게 피는 梅兄의 참 뜻을 알겠으니,

아마 짐짓 내가 추운 때를 겁내는 줄 알겠구나,
어여쁘다, 이 밤이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밤새도록 달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겠네.

역주=아래 시의 역문 《국역퇴계집 I》 p. 58에서 인용.

첫째 시는 매화 꽃 아래서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산촌 사람들 집의 술은 특별한 맛이 있는데, 술을 한 병 가져왔더니 마침 그 때에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다. 「매화나무 곁에서 조금씩 잔질한다」는 곧 매화와 친하려는 뜻이 있는데, 「조금씩 잔질한다」(細酌)는 두 글자에서는 더욱 그 한가한 정취와 빼어난 흥겨움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매화와 친하여지고 싶고, 매화도 역시 나와 친하여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로 술을 권하게 된 것이다.

이 때에 매화와 나는 하나로 융화되고, 서로 친하고 서로 권하며, 서로 사랑하고 뜻을 얻게 된 것이니, 소제를 하고서 麻姑仙子를 기다릴 것도 없다. 그러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역주=마고선자—손톱이 길어 남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준다는 선녀.

뒤의 시는 바로 「梅兄」이라고 불렀으니, 더욱 매화를 사랑하는 그 지극한 정성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매화는 이미 인격화되었다. 매형이 늦게 핀 것은 「내가 추위를 겁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사정을 알게 되어 서로 아끼게 된다.

밤이 사랑스럽고 병이 나을 것 같음은 매화가 明月과 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묘사는 비단 시의 뜻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의 정취도 또한 높여 준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매화의 입장에다 놓고 문답 방식을 사용하여, 사물과 내가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것 같이 하여, 더욱 글의 정취를 생

동하게 만들고 의미가 심장하게 만든다.

<서울에 임시로 기거한 집에 있는 매화분과 주고 받은 이야기>(漢城 寓舍盆梅贈答)란 시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贈盆梅>

頓荷梅仙伴我涼, 客窗蕭灑夢魂香.
東歸恨未携君去, 京洛城中好艷藏.

<盆梅答>

聞說陶仙我輩涼, 待公歸去發天香.
願公相對相思處, 玉雪清真共善藏.
(文集卷五, p.148)

<분매에게 줌>

갑자기 梅仙이 쓸쓸한 나를 짝해 주니,
나그네 창이 말쑥하여 꿈길이 향기롭다.
동쪽으로 <고향에> 돌아가면서 그대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을 설위하
나니,
서울의 티끌 속에서 종이 고움 간직하고 있으라.

<분매의 답>

들으니 도산에 내 벗이 서늘하게 있다니,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天香을 피우리라.
원하건대 우리 서로 대하고(도산 매화와) 서러워하는(서울 매화) 곳에,
玉雪의 맑고 참됨을 모두 고이 잘 간직하리.

역주=번역은 《국역퇴계집 I》 p. 57에서 인용.

年譜에 의거하면, 퇴계는 隆慶 3년 기사년 3월에 서울에서 동쪽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경오년에 집에서 병들어 작고하였다. 퇴계가 서울을 떠나는 마당에 오히려 서울에 기거하던 집의 분매를 차마 잊을 수 없어 이와 같이 주고 받는 문답체의 시를 썼다.

앞의 시는 분매에게 준 시인데, 客窗이 적막한데 매화와 더불어 서로 벗하니, 맑고 서늘하고 깨끗하여 꿈길조차도 향기로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 하나니 서울 티끌 속에서라도 스스로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다. 차마 떨어지기 힘든 이별의 정과 친절하게 되풀이하는 자세한 말은 지극히 정성스러워 마치 옛 친구를 대한 듯하다.

뒷 시는 분매를 대신하여 답한 것이다. 陶仙은 도산의 매화를 지칭하고, 我輩은 분매를 아울러 가리킨다. 도산에 있는 매화가 「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하늘이 준 향기를 피우리라고 한 것은 공을 환영하고, 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을 넘어 비친다. 「서로 대하고 서러워하는」(相對相思)라는 표현은 도산의 매화를 대하고는 서울의 분매를 생각하는 것이니, 서로 대하고 서로 서러워하는 것은 옛 친구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옥설의 맑고 참됨」을 함께 잘 간직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잘 간직하리」(善藏) 두 자는 앞 시의 마지막 구 「고옴 간직하리」(艷藏)와 멀리 서로 호응한다.

정신은 서로 비치고, 도는 서로 아껴지고 존중된다. 이 때에 移情과 연상적인 수법 때문에 퇴계와 매화는 정신상으로 이미 하나로 엉켜서 하나가 된다. 매화의 「옥설같이 맑고 참됨은」 퇴계의 고결한 인격을 상징하는데, 은사의 맑은 목표와 곧은 선비(貞士)의 뜻과 절개 같은 것이 모두 매화의 정신 가운데 살아서 나타난다. 매화의 특수한 가치와 상징적인 의의도 역시 이것을 통하여 아낌없이 드러난다.

XI. 結 論

명나라 때의 평론가 謝榛은

풍경이란 시가 있게 하는 매체요,
 감정이란 시를 낳게 하는 모태다.
 (景乃詩之媒, 情乃詩之胚)⁴¹⁾

이라고 하였다. 풍경과 접촉하면 감정이 생겨나고, 감정이 있음으로써 풍경이 서로 융화되어 간격이 없도록 융화되어야만 그 작품이 저절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퇴계는 隱士의 감정에 바탕하여 매화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매화의 풍경에다가 은사의 감정을 넣음으로써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술적인 경지를 창조하고 청신하고도 생동하는 높은 風格을 형성하였다.

다음에 열거하는 <김돈서의 매화시에 사용한 운자에 맞추어 지음><次韻金惇叙梅花>이라는 시가 이러한 것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我友五節君, 交情不厭淡.
 梅君特好我, 邀社不待三.
 使我思不禁, 晨夕幾來探.
 帶烟寒漠漠, 傍湖清澹澹.
 粲然百花開, 益見眞與濫.
 自臨吸月杯, 肯上賞春担.
 吟詩托密契, 夜光非投暗.
 精神炯相照, 俗物難窺瞰. (文集卷五, p.144)

나의 벗 다섯 절개있는 분,
 사귀는 정 담박함을 싫어하지 않네.
 매화 군이 특별히 나를 좋아하여,
 모임을 이룸에 셋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네.
 나로 하여금 생각함을 금하지 못하게 하여,

41) 謝榛의 《四溟詩話》권3, 《續歷代詩話》下冊, p.1400, 臺北, 藝文印書館.(역주:역자의 줄역《중국의 문학이론》,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3, p.86을 참조하라. 중국의 <情景說>에 관해서는 줄역 《중국시학》(동화출판, 1984) 제2편을 참조하라.

아침 저녁으로 몇 차례나 와서 찾게 하였던가?
 연기에 쌓이고, 또 추위에 삭막해지기도 하나,
 호수를 곁에 두니, 맑기는 그만일세.
 밝게 온갖 꽃 피니,
 더욱 드러나네, 참된 것과 나쁜 것이.
 스스로 곁에 와서 달이 비친 술잔을 들어 마시고,
 봄을 감상하는 짐을 올려 놓을 것을 허락하네.
 시를 나즈막히 읊어 친한 친구에게 맡기니,
 밤 빛이 어둡게 비치지 않네.
 정신은 빛나게 서로 비치니,
 속물들은 엿보기가 어렵네.

「다섯 절개있는 분」(五節君 松·竹·梅·菊·蓮)중에 퇴계는 특별히
 매화를 좋아하여,

나로 하여금 생각함을 금치 못하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몇 차례나 와서 찾게 하였던가?

하였으니, 정말 「하루라도 이 분이 없으면 안 될 것」(不可一日無此君)
 이라고 하겠다.

역주=명필인 王羲之의 아들 王徽之가 일찍이 빈 집을 빌려 살면서 곧
 대나무를 재배하게 하고서는 말하였다. 「어찌 하루라도 이 분이 없을
 수 있겠느냐?」(何可一日無此君)—출역 《퇴계시학》 p.121 참조.

「연기에 쌓이고」(帶烟), 「호수를 곁에 두고」(傍湖)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漠漠」과 「澹澹」은 정신을 환기시키는 것이니, 풍경 속
 에도 감정이 있다.

「온갖 꽃 피니」 두 구절은 감정과 풍경이 나누어 묘사되어 있으니,
 참된 것과 나쁜 것이 스스로 분별된다. 「달이 비친 술잔을 마시고」 두
 구는 감정과 풍경이 엇갈리어 융화되니, 높은 격조가 스스로 드러난다.

「시를 나즈막히 읊어 친한 친구에게 맡기니」와 「정신은 빛나게 서로 비치니」에서는 「친한 친구」(密契)를 이야기하고, 「서로 비친다」(相照)고 이야기 하였으니 벌써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고, 눈이 맞부딪치자마자 도가 있게 된 것이니, 여기에는 흡사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띤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결코 신비스럽다고 할 것도 없으니, 다만 사물 바깥에 초연히 벗어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赤子之心)으로서 도덕적인 실천을 투과하여 보고,美感 경험을 통하여 移情作用(감정이입 Einfühlung과 같음-역주)을 가져오면, 자연의 형상을 미화하고, 정신적인 수양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써 심령의 정결 순진한 경지를 추구할 수 있다.

종합하여 이야기하면 퇴계의 詠梅詩는 그 추구하는 意境이 순진한 미와 순수한 선 이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 창작 기교는 혹 사물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 참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 靈을 생동하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기도 하며, 혹 느끼고 깨달음으로써 그 지혜로움을 열기도 하며, 혹 친구로 삼음으로써 그 어짐을 도우기도 한다.

참됨과 아름다움은 예술에 속하고, 어짐과 지혜로움은 도덕에 속한다.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도덕의 가치는 실용적인 것이고, 예술의 가치는 초예술적인 것이며,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도덕 또한 일종의 미인데, 미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形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속에도 있는 것이다. 맹자는 「내용이 충실함을 일러서 미라고 한다」(充實之謂美)⁴²⁾라고 하였으니 곧 그 실질을 두고서 한 말이다.

퇴계의 영매시는 그 의경의 미가 분명하게 더욱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감정과 풍경에 관하여서 말한다면, 감정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풍경은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감정은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풍경은 눈에 들어온다. 「풍경이란 시가 있게 하는 매체요, 감정이란 시

42) 《맹자》<盡心篇·下>

를 낳게 하는 모태다」(景乃詩之媒, 情乃詩之胚)라는 구절에서 이미 감정과 풍경 두 가지가 시 중에서 차지할 역할을 결정하여 놓고 있다. 그러나 모름지기 이 두 가지는 간격이 없이 배합되어야 비로소 서로 뜻을 얻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

만약 풍경이 없다면, 감정 또한 어디에 붙어 표현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질고 지혜로운 분들이 산수를 즐기는 역시 그 자연스러운情理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개 환경은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인생도 또한 환경을 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옥은 자갈 때문에 곧고」(玉以礫石)⁴³⁾ 매화는 추위 때문에 향기가 나며, 붉은 얼굴은 모두 변하나, 붉은 마음만은 변하기 어렵다.⁴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오늘날 퇴계의 매화시를 읽고, 눈앞의 정세를 살펴보면, 걱정스러운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매화의 깨끗한 정신, 물들지 않는 지조로써 고결한 인격을 양성하도록 하여야만 하겠다.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나라 꽃인 매화꽃으로써 우리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고, 국토를 통일하고 다시 중국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장 우 譯)

43) 《후한서》의 <당파싸움에 몰려 금고형을 당한 여러 선비들의 전기의 끝에 붙은 史官이 논평한 시(黨錮列傳贊). 이 글에 대한 李賢의 주석 : 「옥은 자갈 속에 있어야 그 곧음이 드러난다.」(玉居礫石乃見其貞)

44) 남송 말기의 충신 文天祥이 소동파의 <강에 비친 달을 위하여 술잔을 붓노라> (酌江月)는 詞에 화답하여 지은 사의 한 구절 : 「거울 속에 비쳐보니 붉은 얼굴 모두 다 변하였으나, 오직 붉은 마음만은 없어지기 힘들네」(鏡裡朱顏都變盡, 只有丹心難滅)